

신문기사 표제의 문제점

최진우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독자 대중들은 신문을 대할 때 먼저 표제문을 읽고 거기에 의해서 그 뉴스 내용의 개요를 일차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그 다음으로 관심도에 따라서 본문을 읽게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대개의 경우)는 그 표제문만을 읽고 뉴스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뉴스를 받는 측으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해를 돕는데 큰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이 아닌 표제표현으로 독자는 엉뚱한 사회현상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신문기사의 오해는 독자에게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신문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 된다....

...신문기사는 무엇보다 읽는데 평이하고 이해하는데 쉬워야 한다. 그것은 뉴스 사실의 속보성에 부응하는 전달의 속보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문기사는 특히 사회 사실을 고지하는 뉴스 기사에서 그 요약적 내용을 알리는 기능의 표제문이 오히려 그 표제문의 용어가 난해한 것으로 표현되었다면 뉴스 사실을 수용하는데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I. 머리말

우리는 현대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사회적 현상의 정보와 지식을 매스 미디어, 그 중에서 주로 신문과 방송에 의해 얻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정보와 지식의 내용이라도 그 매체의 표현 특성에 따라 달리 인식하게 된다. 이때 신문은 기사 내용을 먼저 표시하는 안내역의 문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기사문의 표제이다.

신문문장의 문체면에서 보면 신문기사문은 표제문, 기사본문, 광고문으로 나누어 말하게 된다. 모든 신문내용의 문장표현은 결국 이 세 가지의 범주에 드는데 사실보도기사인 뉴스 문장에서 이 표제문이 차지하는 기능과 작용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것이다.

뉴스 문장도 엄밀히 말하면 3개의 문체로 구분 표현된다. 첫째가 표제문, 둘째가 전문, 셋째가 본문이다. 이 문체적 내용의 표현의 특성은, 표제는 뉴스 내용의 중요사항이나 절정(climax)의 표현이고 전문은 본 내용의 개요나 본문리드(lead)를 위한 설명이고 본문은 뉴스 내용의 전부, 즉 5W 1H(Who, When, Where, What, Why, How)의 내용요점을 결과적 사실부터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신문 뉴스 기사문은 세 번 되풀이해서 말해진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되풀이가 같은 문체(구문), 같은 표현은 아닌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표제가 어떻게 표현되어야만 기사내용이 독자에게 읽히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가이다.

이 표제의 표현문제는 뉴스 내용을 살리고 나아가 신문이 독자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는데 바로미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II. 표제의 본질과 특성

1. 표제의 어의

표제(headline)(表題)는 흔히들 「표제」(標題) 또는 「표제」(表題)로 같이 쓰고 있다. 그러나 「표제」(標題)는 「제목」(title)과 동의의 것이 되지만 「표제」(表題)는 그것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의적 언어사용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표제」와 「제목」과의 차이점을 문헌에 의해 고찰해 본다.

최신 판으로 1971 년도 판인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에 의하면 두 용어는 전혀 뜻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표제(headline)(表題)는 「신문기사의 머리(앞)에 있는 것, 계속되는 기사나 이야기를 읽는데 관심을 갖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려고 요약되어 고안되었으며 큰 모양으로 인쇄되어 진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제목(title)은 「해설하고 기술하며 그것에 명칭을 주기 위해 어떤 것의 위와 아래에 놓여진 이름, 제명, 새겨진 이름(명)」으로 되어있다.

「표제」(表題)를 「표제」(標題)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단어는 그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다. 뉴스의 표제(表題)가 되는 것이 「표제」(標題)라면 모든 문장의 앞에 쓰여진 이름의 구실을 하는 표제(標題), 즉 제목에 속한다. 때문에 우리가 쓰는 뉴스의 표제(表題)는 제목이 아니다.

「제목」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영화나 소설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표제(表題)는 뉴스의 제목적 광고 구실은 하지만 일반 제목과 같이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현된 문장의 경우, 또는 발표된 서적과 문서에 붙는 제목 또는 표제(標題)는 표제(表題)의 역할 및 기능과의 그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다.

표제(表題)는 신문기사에서만 쓰이는 것이며 특히 뉴스 문장에서 필요 되고 있다.

2. 표제(表題)의 역할

표제(表題)가 뉴스 기사문에만 한정된 것이라면 그 표제(表題)의 임무가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문장의 제목이 그 문장내용의 의미적, 상징적 또는 분위기적 용어 표현이라고 한다면 표제(表題)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

표제(表題)는 독자로 하여금 무엇보다 뉴스 스토리에 대한 주의를 끌게 한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요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1) 이 주의심의 표시는 많은 기사 가운데 먼저 눈을 끌게 하는 내용표현으로 잡지의 목차 즉 색인(index)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기사가 있느냐, 또는 독자가 무슨 기사부터 읽을 것인가 하는 안내를 이 표제(表題)가 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끌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연구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스토리의 요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다만 주의력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기사의 개요를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이 우선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

스토리의 요점은 구체적인 것이 되어 있어야 한다. 상징적이거나 애매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리버(William Rivers)는 The Mass Media 에서 표제(表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독자의 주의심을 끈다. 즉 관심을 포획한다. ㉡스토리의 요지를 밝힌다. ㉢뉴스를 상징적으로 등급 한다. ㉣신문을 매력적으로 만든다.2)

여기에서 ㉠의 「주의심」이란 한 신문에 보도된 뉴스 내용에 관심을 갖도록 표현함에 있어 보다 크게 주의심이 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눈에 읽는 기사의 관심도를 강하게 하는 것이 표제(表題)의 1 차적 역할이다. ㉡의 「스토리의 요지를 밝힘」은 그 표제(表題)에 가능한 한 뉴스 내용의 골자를 간추려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제(表題)의 특성인 압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긴 표제(表題)가 될 수 없어 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오히려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 요지의 표명에는 실감 있는 용어를 잘 구사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의 「뉴스의 상징적 등급」은 표제(表題)가 지면 구성상 그 뉴스 가치 판단에 따라 크고 작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 대소에 따라 독자들은 그 뉴스의 경중을 등급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등급에 역할 하는 표제(表題)는 독자들에게 상징적인 것이 되지만 뉴스 이해에 오판이 없도록 편집자는 공정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의 「매력적인 신문제작」은 표제의 균형 있고 대조적 배열로 하나의 「읽을만한 흥미」와 감각적 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매력 있는 지면 설계는 그래픽의 기본적이고 많은 이론적 연구의 배경이 있어야 한다.

3. 표제(表題)의 기능

표제(表題)와 제목의 차이는 그것이 그 본문 내용을 위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구별되고 그 존재 의의를 갖게 된다. 표제(表題)는 신문지의 진열창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진열창은 매우 바쁜 신문독자에게 주요한 정보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3)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표제(表題)의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이 직접적인 주요 기능을 한다.

첫째로 최대의 흥미(관심)를 끄는 뉴스의 요소를 찾을 때 독자를 도와주는데 뉴스의 색인이 된다.

둘째 이른바 표제만의 신문독자에게 뉴스를 알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4)
신문표제(表題)는 소설이나 잡지 내용의 제목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능을 한다.5)

㉠ 기사와 기사(다른 기사)의 구별을 하여 준다. 만약 표제(表題)가 없었다면 신문 독자들은 한 면의 기사 전부를 처음부터 읽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개개의 기사 내용과 그 차이점을 알 수 없을 것이다. 하나의 기사에 하나의 표제(表題)가 있음으로 해서 기사의 이질성을 알 수 있다.

㉡ 일상생활의 바쁜 독자에게 단 시간 내에 기사내용의 대개를 알 수 있게 하여 준다. 이 「독자에의 봉사」는 앞의 「기사의 구별」과 같이 만약 표제(表題)가 없다면 부득이 한 기사를 모두(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지 않고는 그 대개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현대 생활의 여건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표제(表題)만의 독자(headline reader)뿐만 아니라 일반독자에게도 자기가 읽고 싶은 기사를 찾는데 이 표제(表題)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도움을 준다.

㉔ 표제(表題)의 대소에 따라 독자가 기사에 갖는 관심이 다르다. 그 대소에 비례한다. 표제(表題)가 크면 큰 만큼의 뉴스 가치로 인식하고 작으면 작은 만큼의 뉴스 가치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 뉴스 가치기준의 판별을 객관적으로 하여 표제(表題)를 붙이지 않고는 독자에게 오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알맞은 표제(表題)의 대소표현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많이 읽혀지고 흥미를 끌 수 있는 기사를 만드는 데는 이 표제(表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편집자는 유의하여야 한다.

미국의 한 신문학자는 신문표제(表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6)

㉑ 독자들의 주의를 포획한다. ㉒ 스토리를 말해준다. ㉓ 뉴스를 등급 한다. ㉔ 신문을 매력 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와 아울러 표제(表題)는 인쇄술(typography)에 있어서 6 개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㉑ 교차형(crosslines), ㉒ 진도형(steplines), ㉓ 도역삼각형(inverted pyramid), ㉔ 공문과 공백(hanging indentation), ㉕ 홍조(flush lines), ㉖ 결합(combination)이다.

그리고 일본의 한 문장심리학자는 신문기사표제(表題)의 기능을 다음의 5 종으로 들고 있다 7)

(1) 표시성

먼저, 내용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한 것이 되어야 한다. 소설이나 수필의 제목처럼 상징적이거나 기분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2) 압축성

내용의 표시가 주어진 좁은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루의 세계상을 몇 개의 신문지면에 실리게 될 때, 더구나 읽는 독자들이 짧은 시간(바쁜 시간)에 읽어야 하는 내용의 표시이기 때문에 문장이 극단적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3) 감동성

신문기사로 취급되는 사실은 그 자체가 센세이셔널한 것이다. 때문에 표제(表題)는 독자를 끌어당기고 놀라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신문내용은 읽히게 하여야만 신문이 많이 팔리게 되므로 이 감동적인 표시수법은 신문기업의 정책이기도 한 것이다.

(4) 품위

그러나 표제(表題)가 분별없이 센세이셔널해서는 안 된다. 신문은 천하의 공기로 사회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품위를 지켜야 한다. 표제는 그 「신문의 얼굴」이다. 아니 지면전체가 신문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이 표제(表題)는 그 눈인 것이다.

(5) 심미성

이것은 앞과 관련된 것이나 독립된 요소이다. 신문의 지면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진, 운곽, 과선 그 밖의 여러 가지 활자부속물이 있어야 한다. 지면이 지저분하거나 보기에 흉하면 읽는데 앞서 매력을 느낄 수 없다.

신문의 표제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기사내용(뉴스사실)을 요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요약된 기사내용의 표제문은 ㉞기사에 없는 것을 나타내지 말 것 ㉜첫 표제와 같은 의미의 제 2 표제를 내세우지 말 것 ㉝정확성을 잃지 말 것 ㉞흥미본위의 읽을 꺼리는 그에 맞게 표제를 붙일 것 ㉟표제문은 그것만으로 구체적이고 완전한 표술을 할 것 ㊱사실의 핵심을 게시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8)

4. 신문표제문의 속성

(1)진술적 · 명사적 구문

소설, 시 또는 수필의 제목이나 그 밖의 여러 내용의 제목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표시하지만 그 표시는 추상적이고 상징성을 띠고 있으며 때로는 기본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용어가 명사 또는 명사상당구로 되어있다.

소설의 제목 등이 단구를 중심으로 해서 표기되었으나 신문기사(뉴스)의 표제(表題)는 문절 즉 진술을 중심으로 해서 구문 되었다.9) 소설이나 시 그 밖의 제목은 phrase(구)이지 clause(문절)는 아니다. 이 말은 구로 진술(predication)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뉴스 기사의 표제(表題)가 문절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완전한 한 문장(sentence)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즉 주어와 술어로 되어 있다. 이 문장(주어와 술어)은 짧은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속에 기사내용이 전부 요약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제목, 즉 소설이나 시의 경우는 그 제목(구)의 몇자로 그 내용의 의미나 주제를 제시 또는 상징적으로 나타내지만 뉴스 기사표제는 그 자신이 그 기사의 주체인 것이다. 그래서 뉴스기사표제는 단도직입적으로 사건의 핵심을 잡아야 한다.

또한 뉴스 표제는 뉴스 본문기사의 서론(introduction)은 아닌 것이다. 아니 서론의 역할은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요약된 기사이고 압축된 사건(사실), 그것의 기술이라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뉴스 기사의 표제(表題)는 소설이나 시의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곤란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10)

①동해안에 폭풍 강풍 11)

29명 탄 어선 "침몰직전" 타전

②수입자유화 외화예치제 확대

남 부총리회견, 상업차관억제, 외화대부로 전환 12)

①의 표제(表題)는 「동해안에 폭풍과 강풍이 불어 29명이 탄 어선이 침몰직전에 타전해 왔다」는 진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요약하고 압축하여 표현했을 뿐 이 표제문에는 주어 부분과 술어부분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구문요소로서는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표제(表題)의 활자적 표현상 그것이 압축되고 생략이 되므로 여기에 불가피 제약을 받게 된다. 뉴스 기사의 표제는 뉴스전체를 진술하는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한다.

(2) 표제(表題)의 압축성

신문의 경우, 그것이 인쇄매체로 공간적 지면을 통하게 되며 방송의 경우도 그것의 주어진 시간 때문에 제한된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보다 많은 뉴스 사실을 그날 할당된 지면에 게재하는 신문지의 경우로는 그 기사내용을 진술하는데 문장적으로 압축하여야만 더욱 많은 뉴스 기사를 보도할 수 있는 것이다.

표제(表題)가 기사본문의 요약된 문장이라고 한다면 그 표제의 또 다른 목적, 즉 뉴스 가치의 등급표시를 위한 활자의 크기, 또한 감동성의 효과를 위해 표제구문이 단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압축성은 주어진 표제(단의 결정)의 문자안에 될 수 있으면 기사본문의 내용을 많이 표출 시키려고 하는 결과적 노력에서 필요가 된다.

여기에는 간결성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 표제의 속성이 또한 따르게 된다. 활자 즉 문자의 식자성에 의한 인상적 효과를 위해 기사의 대개를 한눈에 금방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자적 간결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신문은 모든 것이 압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사나 광고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압축의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이 문장에 있어서의 특이한 생략법이다.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할 말(언어)이 약해지는 것이 다.

표제는 그 주어진 표제단수에 따라 엄밀한 문자수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뉴스로 이루어져 있는 뉴스에서 그 특질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한정된 space(자수)라는 물리적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편한 표현력을 구사하여야 한다.¹³⁾

표제의 표현이 명사적인 것은 그 뒤에 따른 동사 또는 조사를 생략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월남 평화를 거부(하다)

소 외상연설 언커크 해체도 요구(했다)

구호곡 3만 톤 배정(한다)

본문기사문장의 언문일치에 반하여 표제문장은 그럴지가 않은 것으로 기사내용을 요약하고 압축하는데 표의문자인 한자어만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구술적인 조사나 동사가 이와 같은 한자어의 표의성 때문에 오히려 생략됨으로써 표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III. 표제문의 변천

1. 최초의 신문 표제문

신문기사문에 있어서 표제의 중요성과 그 기능은 앞에서 고찰했다. 그러나 이런 표제문이 오늘날과 같이 뉴스 가치를 표현하는 독립된 문장으로 되기까지는 오랜 역사가 흘러왔다.

처음에 신문기사의 분류로 나타난 것은 표제라기 보다는 기사내용의 종류를 표시하는 제목이었다.

논설, 해외전보, 외국통신, 또는 관보라든가 잡보 등으로 큰 활자를 써서 본문기사보다 뛰어나게 하였다. 그리고 그 같은 종류의 기사의 각각 내용에 따라 문장의 첫 글자 윗머리에 꽃이나 나무의 도안으로 장식했거나 둥근 돌, 더 나아가서는 이중환으로 표시를 하였다. 이것은 표제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이다.

미국신문의 표제로서 바나헤트, 즉 횡으로 길게 걸쳐 세운 표제의 시초는 1781년 7월 28일 자의 보스턴 가제트(Boston Gazette)지의 호외신문에서 부터이다.

Carnwallis Taken

앞의 표제는 독립전쟁에 콩웰리스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이 버지니아의 요크타운에서 워싱턴군대에 패배하여 항복한 사실을 크게 내세운 것이다.¹⁴⁾

이러한 몇 단(column)을 통하여 세우게 된 표제는 1895년에 이르러 신문의 판매경쟁이 격렬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그 해 12월 24일자 뉴욕·월드(New York World)지에서 처음으로 8단 통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1891년(메이지 24년)부터 대판 아사히신문에서 일행의 서술표제를 이따금 쓰기 시작했는데 9년 후인 1900년(메이지 33년)의 잡보란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나타났다.

진열장 2계의 추락 (부상 23명)

전양교참사부인

가해자 포박하다

이것은 현대화의 신문 표제인데 어느 나라에서도 국운이 걸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신문표제는 급속히 변화하게 되는 법이다.

1904년(메이지 37년)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신문 지면에 특호 활자에 가까운 큰 활자가 사용되어 표제는 본격적으로 형을 바꿨다. 이듬해 1905년 3월 11일 호외에 큰 표제가 나타났다.¹⁵⁾

2. 우리나라 신문기사의 표제문

우리나라의 신문은 1883년에 나온 조보성격을 띠고 나타난 국한문신문인 한성동보(순보)에서는 신문표제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1896년(건양원년)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에서부터 신문표제를 고찰하여 그 발달의 변화를 논술하여야 할 것이다.

(1) 1900년 전후의 표제문

독립신문 제 1 호부터 신문 기사 문장의 분류상의 제목은 있었다. 광고, 물가, 논설, 외국통신, 잡보, 관보, 우체시간표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동년 5 월 21 일자 (제 20 호)부터는 물가에 항목 (종류)마다 ○표를 표시해서 구분했으며 이 같은 표시는 관보, 외국통신에 그리고 다음호인 제 21 호부터는 잡보에도 ○표를 써서 기사와 기사의 구별을 하여, 신문내용을 읽는데 편의를 주었다.

그런데 1898 년(광무 2 년) 7 월 2 일자 제 877 호부터는 잡보의 기사 앞에 ○표에 이어 그 기사내용을 의미 표시한 표제를 쓰기 시작했다.

○표(마환국) 아라샤 상선태익호 한 척이 상해서 제류표민 고원근, 고인근, 리영봉 등을 실코 이달 십구일 오후 다섯시에 인턴항에 도착하였더라

이 잡보의 표제가 있는 독립신문의 앞인 제 76 호부터는 논설란에 논설이란 제목이 없어지고 논설의 제목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1898 년 9 월 5 일자로 나온 황성신문의 논설과 관보, 잡보의 문장처음에 ◎로 표시했고 잡보에는 ◎(유명무실) 한자로 했고 황성신문의 1901 년(광무 5 년) 1 월 5 일자부터는 ◎신부피수로 ()없는 표제를 쓰기에 이르렀다

이 황성신문에서 사용된 표제는 독립신문과 달리 어느 정도의 본문내용을 압축하여 내놓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와 만세보에 나온 기사문의 표제는 새로운 점을 보여주고 있다.

◎ 洋犬咬人 再作日 萬壽聖節에 慶祝하는人과

內外國觀光하는人이 大漢門前에 雲集하여 人山人

海를 成하얏는디 忽然 法國旅館門前에서 一洋犬이

突出하여 左右로 뛰며 人을 咬하랴 하는지라 觀光

하는人이 一齊 逃去하는디 其中 一草笠童이가

顛仆하여 該犬에게 右脚를 물녀 流血이 狼藉하더

라¹⁶⁾

●沿海上陸

(八月八日 午後)

(一時二十分 發)

日本海軍 陸戰隊는 沿海洲도우인멜돌스가라니

코라야, 與에 上陸하얏더라¹⁷⁾

앞의 두 신문기사의 표제는 ●와◎로 표시성을 강조했으며 만세보의 경우는 ...를 표제우측에 표시함으로써 더욱 강조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매일신보는 잡보란에 4자의 한자로 표제(제목)를 내세우고 그 맨 앞에 ●표를 한 것은 다른 동한문신문과 다른 점이다.

(2) 1920 년대의 표제문

1920 년 4 월 15 일자의 동아일보 제 3 면 2 단 종표제문은 1900 년대의 그것과는 전연 다른 것이다.

평양에 만세소요

십사일오후두시평양에서

만세소동이이러나대소동

또한 조선일보의 1923 년(대정 13 년) 10 월 1 일자 제 3 면의 1 단종표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질주중의 기차와
보통연화가된다
독일에서 새 시험

또 1925년 4월 15일자 제 2면의 2단종표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형평사간부들이
순사의비행을진정
백정놈이라고 욕을하며
함부로따랐다고진정해

이때의 표제문은 본문기사의 설명문으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대개가 3행 4행, 최고 6행의 표제문을 쓰고 썼던 것이다. 이것은 그 많은 행수의 표제가 전문적 기능을 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표제문 중의 특징 중에서 횡표제문은 물론 사진설명도 종행의 구문형식과 같이 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다.

재번두
눈에 성경
기리나이는 는에성경 터부시한열밤일팔
대는난물을줄일쓴지까지한일구여하작시

이때의 표제문은 활자가 본문활자보다 큰 것으로 하여 이른바 과시성과 인상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3) 1940 년대의 표제문

도의원선거전
전황점차본격화
입후보수다수초과 18)

언선식정병합 오독
오합병신헌법공포
영수상임시대통령취임
국민투표는사월 십일집행 19)

횡표제

종표제 문

한자문으로 된 것이 그 특징으로 그 표제문 행수가 1920 년대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1920 년 대의 구어식 표제문이 이때에 와서는 문어적 표현이다.

그리고 횡표제문에는 우에서부터 먼저 연대에서와 같이 쓰고 있는 것은 특이하다. 이것은 해방후인 1947 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

관영의 패제계세	횡표제
또 우리 젊은이에!	
장하다! 민족의 꽃	종표제
당당서운복제패	
보스톤세계마라톤에 20)	

(4) 1960 년대 표제문

장총리피신?
미대사관, 팔군에 은신설 21)

"반성할 점 시인하나 불가능한 단안"
박대통령
담화요지 22)

1940 년대까지 한자어가 많았던 표제문에 이때에 와서 한글이 많이 섞여 졌고 띄어쓰기가 되어있고 표제의 행이 줄어들었고 횡표제에 읽기에 수월한 좌에서 우로 쓰여졌다. 그리고 표제문이 기사내용의 중요부분을 압축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5) 1980 년대의 표제문

파, 계엄군에 발포령
교회측, "군사탄압" 반기 23)

옆방서 땀 연탄불에
일가 3 명 사망 · 중태 24)

이때의 표제는 우선 행수가 2 개로 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제 1 면에 보도된 정치기사나 그밖의 경제, 외국기사는 문장이 압축되고 생략되었으나 기사내용의 절정적 사실을 표제문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사회면인 제 11 면의 표제문은 구어적인 일상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문체가 한입으로 읽어 내릴 수 있어 이해에 수월하다.

주말께 장마비
장마전선 다시 살아나

노사분규 컨트롤 데이터
폐업기로 결정

앞의 표제는 중앙일보 1982년 7월 21일자 제 11면 표제문이다.
한자어가 한글로 표기된 것도 새로운 것이며 독립된 한 문장으로 된 것이 특징이다.
표제만 읽어도 뉴스 내용을 알 수 있는 이러한 문장표현은 사실을 기술하는 단문으로
우리들 현대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IV. 표제문의 문제점

1. 표제문과 사실내용

오늘날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읽게 되는 신문의 기사표제문은 현대사회의식의 정보수용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내기 때문에 잘못 인식하여
오해를 하게 된다.

(예문 1)

『일인과 동거여인
아파트서 변사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연희동 184 제일아파트 502호에서 최향자씨(23여)가
오래전 숨진 시체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오빠 최향태씨(25·경북 대구시)가 발견했다.

오빠 최씨는 지난달 28일 대나에서 상경, 동생 집을 찾았으나 방에 불이 켜진 채 문이
닫혀 있어 외출한 줄 알고 돌아갔다가 10일 동안 매일 참아왔으나, 올 때마다 문이 잠겨
있어 이날 문을 뜯고 들어가보니 심한 악취를 풍기며 동생이 이불을 뒤집어 뜯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최씨의 시체에서 반항한 흔적이나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최씨가 곤로로
피워놓고 자다가 질식사 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시체부검을 의뢰했다. 25)

<예문 2>

『 시내버스 값 이 달 안으로 인상』

서울시는 오는 11월에 실시 예정이던 구간 제 버스요금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요금을
일반버스 25%, 급행버스 및 합승은 33%씩 각각 인상하기로... 26)

<예문 3>

『버스 값 이 달 안에 인상』 12일 김 서울시장은 이 달 안으로 시내 「버스」 및 좌석 「버스」 요금이 인상한다고 발표했다……27)

앞의 <예문 1>에서 기사표제문은 본문기사, 즉 그 뉴스사실과 바른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표제에 내세운 것이다. 죽은 여자가 「일본인과 동거」 한 사람으로, 본지사실에 기술되지 않았는데도 어떤 근거에서인지 그렇게 되어있다.

이것은 사실무근한 날조의 표제문이다.

독자대중들은 신문을 대할 때 먼저 표제문을 읽고 거기에 의해서 그 뉴스 내용의 개요를 일차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그 다음으로 관심도에 따라서 본문을 읽게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대개의 경우)는 그 표제문만을 읽고 뉴스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뉴스를 받는 측으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해를 돕는데 큰 작용을 하는 것이다.28)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이 아닌 표제표현으로 독자는 엉뚱한 사회 현상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신문기사의 오해는 독자에게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신문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 된다.

그리고 <예문 2>, <예문 3>은 또한 오보이다. 값은 물질의 경우, 그 전체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말할 때 쓰이는 것이다. 특히, 교통이기의 사용대가는 값이 아니라 요금인 것이다. 우리의 말로는 샅이 된다. 물건값으로는 시멘트 값, 차 값, 쌀값, 쇠고기 값 등이 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철도요금이 된다.

그런데 기사본문에는 분명하게 「구간제 버스요금」이 라 했고, 「시내 버스요금 및 좌석버스요금」으로 기술되어 있으면서 표제문에는 「값」으로 쓴 것은 신문기자(편집자)의 어휘개념의 착각이 아닐 수 없다.

2. 표제문의 한자와 한글

신문기사는 무엇보다 읽는데 평역하고 이해하는데 쉬워야 한다. 그것은 뉴스사실의 속보성에 부응하는 전달의 속보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문기사는 특히 사회 사실을 고지하는 뉴스 기사에서 그 요약적 내용을 알리는 기능의 표제문이 오히려 그 표제문의 용어가 난해한 것으로 표현되었다면 뉴스 사실을 수용하는데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예문 1>

아파트 하자보수령 29)

<예문 2>

영 동균 타이틀 박탈 30)

<예문 3>

IPI 총회에 참석 이환의 사장 낙위 31)

앞의 3개 기사에서 예문①의 경우 하자는 「하자」이다. 그 어의는 흠, 결점, 「이의가 일어날 사유」인 것인데 그냥 「하자」로 쓸 때 오히려 구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된다.

이 기사의 본문에는 「서울시가 아파트 사업자에 내린 하자보수사항은…」으로 되어있다. 본문기사보다 표제가 읽기에 어려운 한자로 쓴 것은 표현상의 잘못이다.

그리고 <예문 2>에서도 「박탈」은 「박탈」이다. 「빼앗다」는 말인데 읽기에도 그러려니와 이 박탈의 본뜻은 「마구 강제로 빼앗음」 또는 「세력을 빙자하여 남의 재물이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면 당당하게 스포츠 경기를 하여 빼앗긴 「타이틀」을 그러한 표현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한편 <예문 3>의 경우 「諾威(낙위)」는 「노르웨이」라는 국명을 한자어로 쓴 것이다. 이것은 나위라고도 표기하는데 읽는 사람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지면의 제약때문에 불가피했다치더라도 독자대중을 위한 기사표제문은 아닌 것이다.

한자표현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글만으로 국어와 외래어의 표제문의 문제이다.

<예문 4>

화랑 · 미국 아마대표 대결 8강 오늘부터 결승토너 32)

<예문 5>

인하 예선리그 무패

양승관 연타석 홈런 동국대파 33)

앞의 <예문 4>에서 아마대표나 결승토너는 귀에 설다. 그리고 <예문 5>에서 무패는 물론 「동국대파」는 「동국대학이 대파됐다」는 것인데 명확한 이해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밖에 한글만으로 표현한 한자어의 경우, 즉 絶對→절대, 重點→중점, 人氣→인기, 要件→요건, 人權→인권, 本格→본격, 代價→대가, 人格→인격, 地價→지가 등의 표기는 음운상으로 읽는데 어색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는데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

ㄹ과 ㄴ 받침 다음에 오는 자음의 한자속어와 표제문 사용은 삼가하여야 한다.

3. 표제의 주관성과 과장성

뉴스 기사문장이 객관성과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표제의 표현에도 이를 지켜야 한다.

<예문 1>

재수생이 이웃 어린이를 유괴살해

「대입예시낙방」……부인 놀림에 앙심 34)

<예문 2>

유괴살해범은 친척 재수생

홍기군 어머니 예시 낙방 놀림에 앙심 35)

앞의 <예문 1>이나 <예문 2>의 표제문은 범인을 주관적으로 특정지어 재수생이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신문기자의 주관적이고 의도적인 판정으로 되어진 것이다.

다른 신문들은 「10 대」로 표현했는데 직업적분류로 쓸 수 없는 대학입시 낙방생을 「재수생」이라고 규정 시켜 표제문으로 취급한 것은 인식의 「미스」로 표제의 오류인 것이다.

이것은 기사표제문으로 인한 10 대들에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

<예문 3>

"남침 땀 3 일만에 격멸"

전대통령 전방시찰 격려 36)

이 <예문 3>의 표제문은 본문의 사실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 「…………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적의 침공순간부터 3 일까지의 전투에서 결정된다.」라고 된 내용인데 마치 말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표제문에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마땅히 「…… 3 일 안에 격멸 해야……」 아니면 「……3 일 안에 격멸을……」로 하는 것이 좋다.

다음 날인 12 일자의 다른 신문들은 『실전준비완벽』(조선일보), 또는 『남침 땀 초전에 격퇴』(동아일보), 『적 초점격멸능력 갖추자』(중앙일보)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표제문의 과장성이다. 있는 사실을 그 사실 이상으로 크게 표현할 때 이것은 독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까지 주게 된다.

<예문 4>

금요일 밤의 「주유전쟁」 37)

여기에서 「주유전쟁」이란 자동차(승용차)의 기름 넣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주말의 급유폐지로 인하여 사람들이 한 날에 몰린 것을 과장해서 말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입시전쟁」이니, 「취직전선」이니 하여 센세이셔널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 시키는 것이다.

또 하나 과장성과 함께 고루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979년 4월 28일자 도하신문에서 「11 개 금융기관장 갱송」을 기사화했는데 경향신문이 「최대규모 사상 유례없는…」, 동아일보가 「이상 최대규모…」, 그 밖의 신문도 앞과 유사한 표현을 썼다.

<예문 5>

한해 4 백만 삼킨 「저질상혼」 38)

<예문 6>

이것이 복부인계다.

2 억 떼먹은 여계주 최경순씨 39)

<예문 7>

꼬마가수 김미나양 40)

독집 「디스크」 인기

앞의 세 표제문은 이른바 속어의 사용이어서 읽는데 저항감을 준다. 이것들을 「가로챌」, 「집어 쓴」, 「어린이」로 했어야지 국민문장의 바른길을 이끌어 나가야 할 신문의 문장용어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 속된 용어는 본문기사에서는 그와 같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표제문에서 구어체의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읽는데 어색한 감을 주고 있다.

<예문 8>

중 · 소 부외상 3 번째 회담

소식통 "중공선 「브」 사망 전에

관계개선바라"41)

앞의 <예문 8>의 「3 번째」는 「세번째」로 읽을 것이라는 전제로 흔히 쓰이는 용어이지만 그것은 음운상 맞지가 않는다. 문어적 문장에 구어적 어휘를 읽을 때 그 조화가 맞아야 한다. 이것은 「삼번째」로 읽게 된다.

이밖에도 「전과 3 번」, 「4 살 어린이」, 「상타기 5 번」 등은 세 번이나 3 회로, 네 살이나 4 세로, 상타기 다섯 번이나 상타기 5 회로 하여 회수의 이미지를 살리는 표현이 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지나친 약자, 약어식 표제문으로 인하여 기사의 요약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저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압축도 이해를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표제의 약어문제는 특히 스포츠 기사의 경우 심한 것으로 표제문장 그것만 가지고는 곡해의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이다. 「서울대, 육군대파」 또는 「육군, 서울대 격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운동경기로만 볼 수 없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공공단체나 기관의 명칭을 몇자의 한자어나, 더구나 한글로 표기하면 기사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V. 결론

지금까지 신문기사 표제의 본질과 그 역할에 대해 우리나라 신문기사 표제의 변천과정과 함께 알아보았다.

표제는 어의에 있어서 제목이나 표제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써 신문기사에서만 쓰이는 것이며 특히 뉴스문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표제는 ①독자로 하여금 뉴스내용에 대한 주의를 끌게 하고, ②뉴스내용을 알려주며, ③뉴스를 등급하고 ④신문을 매력 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읽게 되는 신문의 기사표제문은 현대사회의식의 정보수용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뱀으로써 잘못 인식하여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도 하고 과장된 표현과 주관적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기도 한다. 또한 지나친 약자나 약어식 표제문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장애를 주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주)

- 1) F. Fraser Bond, An Introduction to Journalism, The Macmillian Company, New York, 1968, p. 179
- 2) William L. Rivers, The Mass Media, A Harper Haper & Row, New York, 1964, p. 288.
- 3) Bruce Westley, News Editing, Boston, Oxford &BH Publishing Company, 1953, p. 113.
- 4) Ibid., p. 114.
- 5) 藤倉輝夫, 신문의 문장, 동경, 동문관, 1954,p.39.
- 6) Taylor & Scher, Copy Reading and News Editing, Prentice Hall Inc., 1951, p.137.
- 7) 波多野寛治, 현대문장심리학, 동경, 대일본도서주식회사, 1966, pp.226~227.
- 8) 소산영삼, 신문학원리, 동경, 동문관, 1969, p.226.
- 9) 전게서, p.230.
- 10) Ibid., p.232.
- 11) 동아일보, 1977년 12월 2일자, 제 1면 6단
- 12) 중앙일보, 1977년 12월 6일자, 제 1면 6단
- 13) 관동크럽, 신문연구, 1960, 봄 호. p.113.
- 14) 오기영일, 현대신문의 원리, 동경, 흥문당, 1968,p.123.
- 15) 상게서, p.184.
- 16) 만세보, 1906년(광무 십년) 9월 15일자, 제 68호 3면 기사
- 17) 대한매일신보, 1905년(대정 9년) 8월 범일자, 제 2면 「전보」 난.
- 18) 조선일보, 1937년 4월 17일자, 제 1면 3단 종표제문
- 19) 동아일보, 1938년 3월 15일자, 제 1면 6단 표제문
- 20) 동아일보, 1947년 4월 22일자, 제 2면 4단 표제문
- 21) 동아일보, 1961년 5월 16일자, 제 1면 종 3단 표제문
- 22) 동아일보, 1964년 6월 4일자, 제 1면 종 4단, 표제문
- 23) 조선일보, 1981년 12월 18일자, 제 1면 종 5단 표제문
- 24) 동아일보, 1982년 10월 14일자, 제 11면 종 2단 표제
- 25) 중앙일보, 1981년 5월 11일자, 제 11면 1단 기사
- 26) 조선일보, 1967년 10월 13일자, 제 7면 5단 기사
- 27) 신아일보, 1967년 10월 12일자, 제 7면 5단 기사
- 28) 奥秋義信, 뉴스원고 쓰는법, 동경, 광연인쇄주식회사, 1970, p.126.
- 29) 동아일보, 1979년 5월 22일자, 제 6면 4단
- 30) 한국일보, 1976년 8월 13일자, 제 8면 종표제문

- 31) 경향신문의, 1977년 6월 1일자, 제 1면 1단 중 표제문
- 32) 동아일보, 1978년 9월 16일자, 제 8면 5단 중 표제
- 33) 동아일보, 상 동일자, 동면 3단 중 표제문
- 34) 동아일보, 1976년 3월 20일자, 제 7면 중 6단 표제문
- 35) 한국일보, 1976년 3월 21일자, 제 7면 6란 표제문
- 36) 한국일보, 1982년 7월 11일자, 제 1면 6단 표제문
- 37) 중앙일보, 1979년 6월 16일자, 제 7면 중 표제문
- 38) 조선일보, 1981년 10월 9일자, 제 11면 횡 표제문
- 39) 중앙일보, 1979년 6월 16일자, 제 7면 중 표제문
- 40) 중앙일보, 1979년 7월 28일자 제 5면 중 1단 표제문
- 41) 중앙일보, 1980년 10월 11일자, 제 2면 중 5단 표제문

-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 방송학과,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저술 : 「신문 편집 제작론」, 편저 「신문학강의」 외 다수
- 현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